다락방 모임 리더 해설지 (9/20 주간)

교훈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창 16:1-16)

1. 사래가 아브람에게 어떤 계획을 제안합니까?(2절) 이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2-3절)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1) **사래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사래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브람도 생식 능력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제안합니다. 고대의 기준에서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여종을 첩으로 삼아 아이를 낳게 하고 여주인에게 입양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처럼 보입니다.

(2) **그러나 문제는 사래의 계획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를 원어 그대로 풀면 "내가 가문을 세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람'도, '우리'도 아니고 '내가'가 강조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하는데, 사래는 내가 스스로 집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3) **또 사래의 계획 속에는 자신의 조급함과 자기중심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브람의 고통이기도 한데, 사래는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고, 하갈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래의 의도와 달리 성경은 사래가 하갈을 아브람에게 '아내(이샤)'로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으려 했던 계획이 이미 사래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눔 **요즘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나의 계획과 방법을 앞세우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사래의 계획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4-6절)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갈 6:9, 롬 8:5-6)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 **갈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롬 8:5-6**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 **사래의 의도와 다르게 임신한 하갈은 자신의 지위가 달라졌다 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상황이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자, 사래는 아브람을 탓하고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브람은 다시 사래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래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은 사래의 학대를 못 이겨 임신한 몸으로 도망합니다. 자기 집을 세우겠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집안을 '콩가루'로 만들고 사래 자신의 고통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2)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주도적인 계획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집요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그 죄가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어 보이는 계획도 근본 동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원하는 결과를 빨리 만들겠다는 오만과 착각, 조급함이 있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3) **얼마나 빨리 가는가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법을 겸손히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성령의 생각과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걸음에 생명과 평안이 함께하고 선한 열매가 지속해서 맺을 수 있습니다.

나눔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곤 합니까?**
그럴 때,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3.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며(7-8절), 무엇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까?(9-12절) 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하갈은 사래의 학대를 피해 고향 이집트로 가는 길에 술 길의 한 오아시스에 머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는데,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아"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홀로 도망하는 하갈을 외면치 않고 찾아가시며 친히 보살피십니다.

(2) **하나님은 하갈에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래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사래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십니다. 하갈도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와 의무를 깨닫게 하시고, "사래의 손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 **하나님은 하갈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1)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 고통하는 하갈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하나님이 들으셨다)'로 짓게 하십니다. 하갈이 홀로 삼킨 고통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신 것입니다. 3)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갈이 사래의 '손' 아래로 돌아가더라도 그 아들의 손은 자유로운 손이 되리라는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4)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고 들으시는 은혜롭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망친 이집트 여자 노예에게도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복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는 훗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이스라엘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들으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우시는 그분의 의(체데크)를, 아브람의 후손들인 우리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체데크)가 율법의 기본정신입니다.

나눔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고통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내 고통을 들으신다'는 사실이 어떤 위로가 됩니까?**

4.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15절) 아브람의 가정은 어떻게 모두 제자리를 찾습니까?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이라 짓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은 사래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람의 아들'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아브람 역시 그 이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역사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체데크)가 무엇인지를 깊이 배웁니다.

(2)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다시 여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갈은 자유를 찾아 본연의 자리를 벗어났지만,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고통을 살피시고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난 뒤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사래에게로 돌아가 여종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습니다.

(3) **사래도 실패와 고통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찾아갑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집을 세우려다가 계획이 뒤틀리고 큰 고통을 겪었지만, 사래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이후 남편 아브람을 '내 주인(아도나이)'이라 부르며 순종과 믿음의 여인으로 성장하고, 마침내 믿음의 여조상으로 세워집니다. 자기의 계획이 실패한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4) **아브람도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더 깊이 배우며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합니다.** 하갈은 여종으로서, 사라는 믿음의 여조상으로서, 아브람도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깊이 배운 믿음의 조상으로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인생의 계획이 뒤틀리고 좌절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중력을 따라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길이 막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영적인 차원의 문이 열리면, 길이 보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나눔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영적인 차원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